퍼펙트 論述

학력 중시 사회

'학력 우선' 잘못된 가치관이 낳은 사회 병폐

1. 학력주의라는 사회적 함정

학력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사건과 외고 입시 부정 사건이 그것이다. 전자는 한 개인의 비뚤어진 출세욕에서 시작된 학력 위조 해프닝이 사회 전반에 걸친 고질적 문제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기폭제로 작용하여 학력 위조 문제가 일파만파 확대된 경우이고, 후자는 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과열된 교육열과 자본주의의 폐해가 접목되어 죄없는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전락시킨 사건이다.

물론 개개의 사건이 나타난 원인과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각 언론과 여론은 설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러한 사건이 가능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기에 언제든 같은 문제점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학력 제일주의의 원인과 문제점

누구나 좋은 학벌을 가져야만 더 빨리 출세하고 더 행복할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론을 제기할 대한민국 사람은 흔치 않다. 이미 오랜 세월 우리 뇌리에 교육은 상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쯤으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급격한 사고 방식의 전환과 신분 질서의 해체는 그 동안 억눌려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물론 그 기회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봉건 사회에서 허기지고 천대받는 궁핍한 삶의 순환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며 그들을 감싸고 있던 단단한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사고 방식을 과감히 던져버려야 했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적 신분을 획득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했기에 불타는 향학열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교육을 받는 주체가 지닌 열정이었다. 즉, 타인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 향학열인 것이다.

물론 그러한 사고의 큰 기조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16년에서 18년의 시간 동안 잠을 설쳐 가며 젊음을 소진한 대가로 좋은 학벌을 얻은 이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신정아씨의 학력 위조 사건은 실력보다는 학력을 우선시하는 일그러진 사회의 한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첫인상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대학 출신, 유학파'라는 소개만으로도 후광효과를 누릴 만큼 사회는 학력이 우수한 이에게 관대하고, 또한 대부분의 청년 일꾼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의 서류 전형은 출신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일쑤이니 실로 학벌은 인간의 품질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노력한 자에게 대가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분명 정의로운 사회이다.

다만, 최근 벌어지는 사태들은 뭔가 요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좋은 대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실력을 지닌 사람들이 태반이며, 개인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학력을 높이기보다는 남모르는 곳에서 열심히 돈과 땀을 흘려 가며 학력을 위조한다. (전문가들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학위를 조작하고 증명서를 만들어 내다니, 학력 위조 실력과 배짱은 인정해 줘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공정한 삶의 방식을 습득하여 사회로 나아가야 할 어린 학생들에게 꼼수를 부려 타인을 짓밟고 나은 위치를 선점하는 방식을 전수하는 선생님도 있다. 게다가 좋은 학력을 얻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하루 종일 과외와 학원을 전전하며 개인적인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모두 학력 제일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학력주의는 보다 높은 학력이 보다 높은 계급과 특권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75%이상이 학벌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벌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도 34.6%에 이르러 세 명 중 한 명은 학력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꼴이 된다.

이처럼 학력주의가 확산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먼저 이미 사회 각 부분의 요직을 좋은 학벌을 지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일류대 위주의 취업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어렵사리 취업을 하더라도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학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런 학력주의는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된다. 먼저 자식들에게 남들보다 유리한 학력을 얻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교육열로 지나치게 많은 사교육비가 투입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동시에 공교육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충분한 사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결국 저학력자가 되어 사회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 계층이 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는 또다시 다음 대에까지 악순환되어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수능 점수가 정비례한다는 조사를 토대로 살펴본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 수 없는 참으로 암울한 나라일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의 명목적 가치에 미달되는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억지로 고학력을 취득하게 되면, 자신이 지닌 실질적 가치를 능가하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수준에 맞는 연구와 학문적 탐구를 할 수 없으며, 소위 '간판에 걸맞지 않는 졸업생'이 되기 일쑤다.

자신의 미래 직업과 적성을 이루는 데 고학력이 필요한 경우에 진학을 결정하는 프랑스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대학 졸업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청년 실업자의 대열에 끼어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본다면, 이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는 궁극적으로 껍데기뿐인 인재를 대량 생산해 내는 학력 인플레 현상으로 이어진다. 흔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너도 나도 대학을 졸업하는 현실이니 '대학생'이 집안의 자랑이던 시절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어느 대학 출신인가'를 따지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며, 거시적으로 이는 '학벌주의'를 양산하는 토대가 된다.

3. 실력 제일주의를 위하여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교육 제도가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제도를 완벽하게 갖춘다고 해도 학력주의는 없어지지 않는다. 결국 또 다른 고학력주의가 양산되고 최고가 아니면 무능력한 인간으로 낙인찍히는 풍토는 사라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학력이 좋으면 실력도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반대로 학력이 좋더라도 그 사람의 실력은 또 다른 기준을 통해 검증되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부모들의 교육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릴 때부터 학력이 최고의 가치임을 강조하며 어린 학생들을 사교육의 현장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잘못된 가치관 형성으로 인하여 그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에도 사회적 병폐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의 적성과 취미를 통해 향학열을 불태울 수 있도록 부모의 비뚤어진 교육열은 잠시 식혀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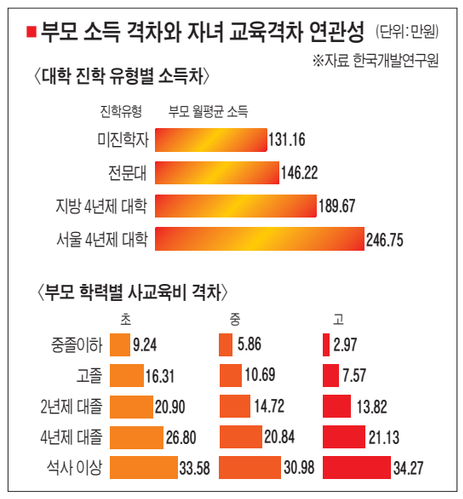
임 미 정
1318논술연구소
독서논술팀장

동영상 강의
www.1318hi.com

실 전 연 습

(가)~(다)를 토대로 하여 학력 위주의 사회 풍토가 사회에 미치는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가)



(나) 이제 반상 제도는 철폐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신분 계층의 장벽은 무너졌다. 그러나 예부터 내려온 지식의 중요성과 이의 존중, 그리고 이 지식의 소유 계급이 행사해 온 지배권의 체제는 바뀌지 않고 단단하게 그 자리를 굳히고 있다. 지식의 내용이 유교 경전과 중국의 시문에서 다양한 근대 학문의 내용이 담긴 새 경전으로 바뀌었고, 지식 계급도 유교적인 인문 엘리트에서 과학, 기술, 경영, 군사 영역을 포함하는 다양한 엘리트 집단으로 전문화되었으며, 신분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지식에 접할 수 있도록 지식의 문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 계급의 엘리트 의식과 지배적 위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만 하다. 오히려 지식에 의한 지배의 방식과 체제가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지배의 정당성 또한 '과학적' 논리에 기초하고 있을 정도이다.

높은 수준의 학력을 내세우는 지식 소유 계급은 평등 이념을 한결같이 주장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오늘의 사회를 경쟁 사회, 실력 사회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그들은 세계 정황을 가리키면서 경쟁에서 싸워 이겨야만 살 수 있다며 '사회 진화론'의 추종자가 되기도 한다. 신분의 제약 때문에 사회적 상승 이동이 불가능하였던 폐쇄적 불평등의 시대는 지나가고, 신분에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상승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게 된 경쟁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은 경쟁을 통한 차등,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의 원리를 믿는 '불평등을 향한 평등'이라는 논리 위에 서 있는 셈이다. 이러한 평등 이념은 오늘날의 교육 제도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오랜 가치 이념의 주요 요소와도 일치한다.

(다) 사회 불평등은 모든 유형의 인간 사회에서 존재한다. 심지어 재산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가장 단순한 원시 사회에서조차도 사회 구성원들 간에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으로 존재하였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근대 이후의 기본적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시기, 어느 사회에서나 왜 사회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일까? 한 사회에는 부, 권력, 위신 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자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들은 모든 사회 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자원이 개인 간이나 집단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 간에 수직적인 위계가 형성되고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DAEWOO ELECTRONICS
난방비 절감율 83% 효율 대우 냉·난방기
구입비 부담없이 렌탈로 빌려쓰고 절감된 난방비로 무료사용 기대효과
조목조목 따져보고 비교해 주십시오
연말기획 "찬스" 새것 받고 헌것 주기
중고 에어컨, 난방기, 냉·난방기 보상판매기획
- 중고제품 정상가격 보상 받으시고 파격적 유지비 절약 신제품 사용의 연말 기획찬스
하나. 중고에어컨,난방기,냉·난방기 보상판매 단행 — 사용하시던 에어컨이나 난방기, 냉·난방기 정상가 보상판매로 신제품 구입 및 교체효과 만족은 물론 난방비 절약 절호의 기회
둘. 렌탈로 구입비용없이 사용하고 36.5% 세금혜택까지 기져 가십시요 — 소유권이 전부 렌탈에 의한 구입비 부담없는 사용
셋. 장기할부로 부담 없이 구입비 최소 — 금융부담 없이 원금만 분할상환으로 구입하고 절감된 난방비용으로 대납하는 무료구입 기대효과
넷. 한전무상지원금 최고 152만원 혜택 — 월격제어 냉·난방기 구입시 한국전력의 수요관리사업에 동참하고 무상 지원금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난방비 절감율을 비교해 주십시오 — 공인기관의 성능 시험성적서에 의한 객관적인 절감율을 꼼꼼히 비교 평가해 주십시요
여섯. 완벽한 A/S 조직망에 의한 전국 원콜써비스시스템 — 대우전자써비스의 전국 A/S네트웍에 의한 전문엔지니어의 제품 설치 및 고객만족 사후 써비스
경유대비 최대 83%절감
-18℃ 초저온에서도 더욱 강해진 Hi-Engine 초강력 파워의 저온형 대우일렉 냉·난방기
프리미엄
DC 인버터 벽걸이형 냉난방기
천정카세트형 난방·냉방 복합기
6, 8, 15, 18, 23, 33, 44, 63, 80, 110형 (업소용, 산업용, 소·중·대형)
·제 조 원: 대우일렉
·설치및A/S: YES Service 대우일렉서비스
구입 문의 대우일렉 호남 총판(금호월드 2층 하이네트) 080-350-8822 딜러모집 376-2900

ASSET KOREA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 062-236-3400
최고의 수익 물건 [공동투자] 하실분을 찾습니다. [50억한도]
경매로 [재테크 성공하기] 위해서는
- 수수료만을 탐하지 않는 [고객이익 우선원칙]을 실천하는 회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 투자금액대비 수익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수익성=환금성=메매차익]
근린시설/ 원룸상담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물건개요) 감정가 최저가
김제시/대형미트/대593,건546 14억 7억
용두동/어린이집/대233,건325 17억 6억2천
농성동/원,투룸부지/대116,건67 5억2천 1억8700만
신안동/전시장/대287,건788 25억 9억
순천시/스포츠센터/대2386,건2595 113억 46억
우산동/모피시술소/대184,건624 18억 8억
용봉동/원,투룸/대66,건158 5억 3억5천
용봉동/원룸/대56,건124 3억9천 2억7천
삼각동/원룸/대63,건107 2억6천 1억8천
모텔/근린상가 상담
심현철팀장 010-9660-3225
소재지(물건개요) 감정가 최저가
월계동/4층근린상가(637/사무실 2 7000만
순천시/7층모텔/대155,건520 16억8천 8억5000만
월계동/6층모텔/대152,건427 15억8천 11억
서동동/2층근린상가(70/사무실 5억7천 1억6천
여천시/7층모텔/대168,건541 14억 5억7천
우산동/5층모텔/대100,건433 11억 5억
신안동/5층모텔/대100,건325 9억 4억
월곡동/4층근린상가(99)/독서실 4억7천 2억1천
월곡동/3층근린상가(97)/학원 5억9천 2억6천
아파트/빌라 상담
황정권팀장 010-2648-2550
소재지(물건개요) 총/층 감정가 최저가
화정동/우미2차/44 20/16 1억8300만 1억2810만
풍암동/대주파크빌/34 22/13 1억5300만 1억710만
월계동/벽산/38 15/14 1억5000만 1억500만
소태동/대주빌라트/45 6/6 1억2000만 5376만
송정동/라인2차/25 13/13 6000만 4200만
운암동/삼호/32 15/2 7700만 4312만
금호동/중원펠리스/34 20/14 1억3000만 9100만
풍암동/동부센트레빌/53 20/4 2억3000만 2억300만
주택/재개발 상담
조성원이사 010-8003-7007
소재지(물건개요) 감정가 최저가
산수동/2층주택/대50,건49 1억3천 5000만
하산동/단층주택/대88,건26 7900만 4400만
중흥동/단층주택/대39,건26 1억700만 4800만
산수동/2층주택/대50,건49 1억4천 6400만
통령통/2층주택/대34,건43 1억 3750만
지산동/단층주택/대39,건23 7400만 2660만
월산동/2층주택/대37,건52 8500만 3000만
두암동/2층주택/대61,건41 1억800만 4800만
상가주택 상담
오옥순팀장 010-7284-5004
소재지(물건개요) 감정가 최저가
풍향동/3층상가주택/대53,건198 4억4천 2억5천
유동/상업지역단층/대100,건71 2억8천 1억5천
금남로/2층한식집/대94,건73 3억3천 1억5천
오치동/3층상가주택/대76,건170 4억8천 3억3천
나주시/단층상가/대118,건99 2억 4600만
오치동/3층상가주택/대56,건95 2억500만 1억4천
오치동/3층상가주택/대74,건173 3억2천 1억1천
문흥동/3층상가주택/대54,건97 2억3천 1억3천
공장/토지 상담
박경원팀장 010-2611-5598
소재지(물건개요) 감정가 최저가
담양군/축비공장/대1243,건547 4억4천 1억
용동/식품공장/대500,건419 11억 6억1천
월출동/전자부품공장/대1001,건286 9억700만 6억3천
오선동/아파트형공장/4층 전용128 3억3천 1억5천
생촌동/1종주거지역/전95 1억2천 8500만
삼각동/1종주거지역/답320 3억7천 2억700만
농성동/준주거지역/대150 10억9천 3억8천
오치동/2종주거지역/답342 4억7천 2억1천
재테크 성공을 위한 무료경매정보 홈페이지 http://www.assetkorea.com
재테크예약=[현장조사/권리분석/수익분석/입찰가산정/대출진행/명도까지 원스톱서비스]
행복한 경매를 위한 탁월한 선택!! 부동산경매 전문회사(주)에셋코리아